강진군-의회, 국고보조금 증감 놓고 진실 공방

김보미 의원 행감서 급감 주장
군 "2000억원 돌파…역대 최대"
김의원 "발로 확보한 예산 저조"

강진군과 강진군의회가 국고보조금 확보 규모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보미 의원이 강진군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고보조금 확보가 저조하다고 질타하자 강진군이 역대 최대라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지자체가 노력해 확보한 보조금(공모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재반박했다.

7일 강진군의회와 강진군에 따르면 김보미 의원은 지난 2일 강진군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비 확보가 저조하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강진군의 각종 공모사업 국·도비 확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확보액은 77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28억원보다 24.5%(252억원) 감소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822억원에서 2016년 1190억원으로 1000억원대를 넘어섰고, 2017년 1192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8년 1013억원, 지난해 1028억원, 올해 776억원으로 감소세다.

앞으로의 사업을 가늠할 수 있는 각종 공모사업 용역비 집행 현황에서도 감소세는 확인됐다. 연도별 용역비 집행 현황을 보면 2017년 1억6341만원, 2018년 1억5960만원, 2019년 3억55만원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2억166만원으로 전년대비 33.9% 급감했다.

김 의원은 "매년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증가세인데 강진군만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도비 확보 예산은 감소했지만 사업건수와 군비 등 자부담금은 증가해 받는 돈은 줄고 내는 돈은 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코로나19와 수해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진군은 올해 국·도비 보조금 확보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최초로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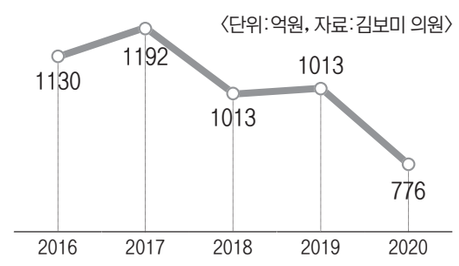
강진군은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1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액이 2017년 1386억원에서 2019년 1712억원, 올해 202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는 설명이다.

강진군이 이같이 반박하자, 김보미 의원은 "강진군이 노력해 확보한 각종 공모사업 확보 내역의 저조함을 지적한 것인데, 강진군은 중앙부처 및 전남도 위임사무로 받은 국도비 보조금을 마치 군이 신청해 선정된 공모사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채용 강진군 기획예산실장은 "김 의원은 마치 강진군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지적하고 있다"며 "776억원은 한달 전 자료다. 이달까지 960억원의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했고, 연말이면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명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군 공모사업 보조금 확보 현황



나주시, 광주~나주~목포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 나섰다

광역철도위원회 1차 회의
단일 생활문화권 벨트화 추진
국정과제·국가철도망 반영 총력

나주시는 지난 2일 대회의실에서 '광주·나주·목포'를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의 차기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광역철도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차기 국정과제 채택을 목표로 추진하는 5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광주~나주~목포 간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대회의실에서 광주·나주·목포를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의 차기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광역철도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단계 목표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사업' 반영을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광주~나주~목포 간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은 나주시가 마한사 복원, 역사문화도시 지정, 영산강 생태복원과 함께 차기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추진하는 5대 선도정책 과제의 핵심 프로젝트로 꼽힌다.

이 사업은 광주~나주~목포를 잇는 광역교통망 연계와 단일 생활문화권 벨트화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 교류를 도모하고 인구유출과 교통정체 해소,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상생발전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위원회는 특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해 5월 착수해 내년 5월까지 추진하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올해 9월 착수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 이 사업을 반영시키고, 더 나아가 차기 대선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나주시는 중앙부처, 지자체,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광역철도망 구축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전남도를 비롯한 철도망이 구축될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회도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은 '나주와 전남 서남권 광역철도' 구축을 부제로 포함한 '왜 광역철도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전 연구원은 세계 각국 대도시의 광역철도망 현황과 사례, 기후위기 시대의 수단으로서 광역철도망 필요성, 국내 광역철도 현황과 광역망 투자의 수도권 쏠림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나주와 광주, 전남 서남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고 위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광주~나주~목포 간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화순 농촌지도사 잇따른 수상…"농업발전 기여"

고재권,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
김기범, 전라남도 으뜸 지도상 우수

고재권 지도사

김기범 지도사

화순군 농촌지도사들이 농업·농촌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잇따라 수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순군은 농업기술센터 고재권 농촌지도사가 '2020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김기범 농촌지도사는 '2020 전라남도 으뜸 지도상' 우수상을 받았다.

고재권 지도사(청풍면 농업인상담소장)는 블루베리와 복숭아 등 과수 품목별 농업인 조직을 육성하고 블루베리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 화순 복숭아 명품화 현장기술 보급과 현장 문제 해결로 농업경쟁력을 높인 공로를 인정 받았다.

고 지도사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범 지도사(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는 전남 최대 규모의 스마트 팜 기반 조성으로 화순군이 미래 디지털 농업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함평군은 매년 4월8일 주민과 학생 1000여명이 참여하는 '기미 4·8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를 열고 있다. 〈함평군 제공〉

화순군 재난안전본부 가동…"AI 확산 차단 총력"

화순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을 위해 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전북 정읍의 오리농장에 이어 경북 상주와 영암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AI 확산 우려가 커지고 정부가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한 데 따른 조치다.

화순군은 4개반 24명으로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선제대응에 나서 AI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 가금류 농장에 대한 방역 소독 등 AI 방역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AI 확산 방지를 위해 AI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철저히 운영하고 가금류 농장에 방역 관련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고 화순군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지역 가금 농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함평군, 내년 '기미 4·8 만세운동 기념관' 건립

함평군은 내년에 '기미 4·8만세운동 기념관'을 건립한다.

함평군은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확산하기 위해 총사업비 3억원을 들여 해보면 문장 3·1만세탑 인근에 30여평 규모의 '기미 4·8만세운동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7일 밝혔다.

함평군은 현재 국비 9000만원과 도비·군비 2억 1000만원 등 총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 함평군은 내년 4월 착공해 내년 안에 완공할 계획이다. 함평군은 매년 4월8일 주민·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미 4·8만세운동 추모식과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를 하고 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無 착색료 감미료 합성향료